

墨子思想에 對한 一考察 (二)

二千年前 中國의 空想的 社會主義者

安炳珠

二, 儒學의 論理와 墨學의 論理

元來 墨敎의 目的은 現實世界에서 模倣, 接近할만한 理想的 天下의 建設에 있는 것이다. 다시 말하면 儒敎는 二個의 □□에 沒頭하였다. 第一은 例컨대 春秋에서 본 것과 가티 語辭의 公平한 使用을 말하고, 第二로는 慣習, 格□, 禮儀, 作法들을 □□하였다. 그리고 禮의 目的은 各 個人의 行爲 及 社會의 交□를 超□하는 理想關係의 法典을 備함에 있다. 故로 그 形式됨이 繁文縟禮에 빠져서 飲食, 衣服, 坐作, 進退, □□, 言語, □□, □□, 婚姻, 死亡, 喪□, 討□, 禮拜, 犧牲 其他 人間行爲의 各 方面에 □□하여 詳細한 記述을 하였다.

이와 反對로 墨子는 儒敎의 全□에 對하여 特히 그 實際上 結果에 □□하지 못할 沒交涉한 第一義의 天下의 □□에 對하여 反抗하였다. 卽 墨子는 信仰, 理論, 及 數□에서 基□爲及□□을 判別하는 □□을 求하였다. 그리하여 그 □□일랑 信仰, 理論 等を 生케 하는 實際上 結果가운데서 찾아냈다. 一□ 觀念(□)에 關한 儒敎에 原理는 事物 及 制度를 器具, 制度 及 法則을 象□하는 觀念, 自身 中에서 그 起源을 求하였다. 卽 現在의 事物의 □□를 □捉키 爲하여야는 此等 事物의 名稱에서 根本的 觀念, 理想的 意義에 復歸함을 必要로 한다. 그러나 墨子는 이 見解에 反對하였다. 器具, 制度 及 概念에 基因하지 안코 事物의 意義를 理解키 爲하여야는 生할 만한 實際的 結果를 □□하는 것이다. □基實際的 結果가 □值엇고 □□잇는 것이다.

墨子說의 要領은 各 個度의 意義는 그 目的을 爲하여 善이라는 데서 이것을 求하도록 各 概念, 信仰□는 □□ 등의 □□는 行爲□는 性格의 □□의 適應한 것 中에 이것을 求할 수 있다는 것이다(胡適의 『中國哲學概論』에 依함).

墨子는 基敎說을 通하여 實用□□□□한 □界的 愛他主義를 □□하였다.

墨子の 批判에 依하면 □者는 善惡行爲를 說明, 判斷하였으나, 基根據는 絶對的이오 先天的이다. 孔子 及 基學徒는 그 結果의 如何를 顧慮치 안코 天下

에서 할만한 것을 主張하였다. 또한 □□는 天下를 究□의 目的으로 헛스나 效力을 體驗할만한 方法도 □□도 갖지 안헸다. 卽 其實際의 結果에 對하여 沒交涉함으로 其 宇宙觀이 □□□象的 이여서 마치 □人의 白□에 對한 定義와 가티 無意義, 無責任하다는 것이다.

墨子は 不絶히 生活給行爲의 實際 上의 適用에서 分離한 一般 原理의 傳說的 □度を 非難하였다……墨子は 小物을 알고 大物을 알지 못하는 □□를 말하였다. 그의 反□론에서 이것을 엿볼 수가 있다. 그 말이 曰

『사람이 남의 田□에 드러가 그 桃李를 도적한다면, 爲政者는 이것을 罰한다. 또 남의 犬馬를 도적하는 者 잇스면 그 罪는 桃李를 도적한 것보다 더 크다.-또 남의 衣裳을 □□고 戈□을 □하는 자 잇다면 그 罪는 前者보다도 더 크다. 그러나 만일 大□이 小國을 攻略하는데는 그 不□를 말하지 안흔 뿐더러 □이어 □□□를 세운다. 이것으로써 보아 天下의 君子義와 不義를 分□치 못하는 것이다(□攻編).